괴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네 대하여

선서학과 김단네 선서학과 시규성 선서학과 시다빈 국서국문학과 박찬희

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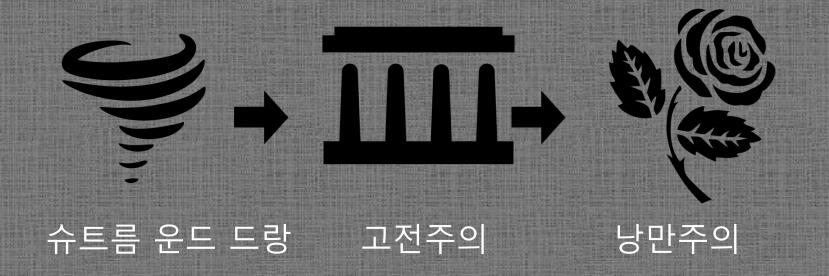
- 1. 괴테
- 2.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2.1 작품 소개/줄거리
 - 2.2 생성 배경
 - 2.3 영향
- 3. 형식적 분석
 - 3.1 등장인물
 - 3.2 형식분석
 - 3.3 에피소드
- 4. 비평적 수용사
- 5. 몇 가지 논의점

Goethe, Johan Wolfgang Von



- ◆ 1749년 8월 28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출신
- ◆ 문학신동
- ◆ 변호사 경력
- ◆ 바이마르공국 재상
- ◆ 실러와의 교류

Goethe, Johan Wolfgang Von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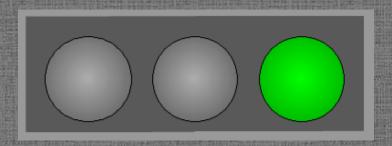
- ◆ 베르테르의 로테를 향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그것에 대한 고뇌
- ◆젊은 지식인이 느끼는 사회적 문제
- ◆시대와의 단절로 고민하는 청년의 모습을 묘사

생성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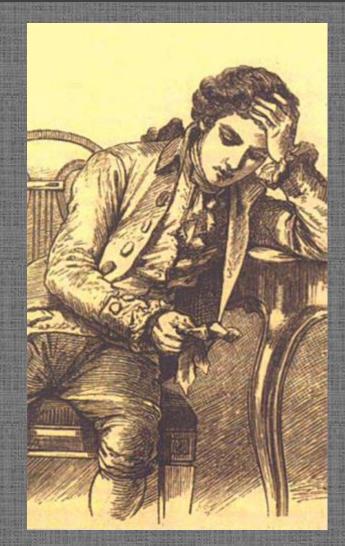
1774년 독일 근대소설의 시초 **라이프니츠의 계몽주의**로 대변되는 이성 만능의 조류



감성의 우위를 운위하며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창출 정체된 시민사회의 구조를 개인의 주체성의 시각에서 비판



생성 배경



친구인 케슈트너의 약혼녀 샤르로테 부프에 대한 사랑



함께 공부하던 예루잘렘이 유부녀에게 실연당해 자살한 사건

영향



남자들은 베르테르가 입었던 노란 조끼와 바지, 파란 프록코트, 갈색 부츠와 둥근 펠트모자

여자들은 소매와 목 부분에 붉은 줄이 들어간 흰 드레스를 입고 베르테르라는 이름을 딴 향수

'베르테르 효과'

영향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애독자였던 나폴레옹

'결말이 맘에 들지 않는다!'

괴테 왈
"폐하께서 소설에 결말이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작품 형식적 분석

◆ 등장인물



샤를로테



알베르트



베르테르

The first die for garden garden of for for for the form of the for

빌헬름

작품 형식적 분석

◆ 서간체 (총 82편)

구성 분석	1부	2부
시간	봄, 여름	겨울
장소	발하임	도시와 발하임
분위기	Liebe(사랑)	Leiden(인내)
내용	도시를 떠난 베르 테르와 유부녀 로 테와의 사랑	절망에 찬 도시생 활과 다시 돌아온 발하임에서의 고뇌

작품 형식적 분석

- ◆ 에피소드
 - 1. 머슴의 에피소드

마을의 과부집 머슴이 여주인을 열애하던 나머지 그 집을 쫓겨나게 되고, 그의 뒤를 이은 머슴을 살해하여 구금되는 사건.

2. 로테를 짝사랑 하던 청년의 에피소드 로테 부친의 서기로 일하던 젊은이로서 로테에게 연정을 품었다가 정신병자가 되고 만 불행한 짝사랑의 일화



비평적 수용사

● 신학자 요한 M. 괴체

"... 어리석은 젊은이의 자살에서 뻔뻔한 면을 지우고 이 추악한 행동을 영웅적인 행위인 양 꾸미려는 목적밖에 없는 소설 이런 사탄의 유혹물을 인쇄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는 검열기관이 없단 말인가! 오,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이런 시대에 살게 하셨습니까?"

시인이자 극작가, 야콥 미하엘 라인홀트 렌츠

"베르테르의 공적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 속에서 어렴풋이 예감하지만 분명하게 이름 지어 부를 수 없는 정열과 감각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데 있다."

비평적 수용사

●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타난 사실성과 허구성 by 이상

괴테의「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18세기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작품이다. 그 이 유는 세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주제와 표현방식이 전통적인 틀을 <u>벗</u> **어나 있다.** ... 그것이 바로 시대를 앞서간 사실성이며, 사회문제를 이슈화한 대담성 이다. ... 둘째 시민의식이 작품 전체에 끊임없이 표현되고 있다. ... 문학이 바로 주인공의 의식이나 정신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지 교훈이나 교육과 같은 틀에 집어 넣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괴테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괴테의 입장은 동시 대 작가들에 의해 비판을 받는다. <mark>렛싱</mark>은 괴테가 시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경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렌츠**는 괴테의 소설이 자살을 교묘하게 옹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격정적인 고뇌를 표현하여 독자들을 위험한 방향으로 이 끌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셋째「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현실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지만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통속적이 **었다.**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무대는 동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시절 바 로 그곳이었으며, 주인공들 역시 당시의 문제로 고민하는 동시대인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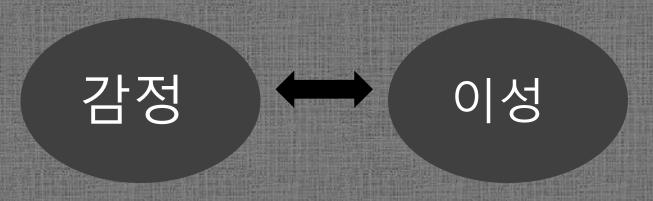
비평적 수용사

◆ 괴테의「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타난 이성과 감성의 대립연구 by 하성일

괴테의「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18세기 이성이 절대화하고 도그마화한 독일사회에 감성 즉 내적 자연이 다시 꿈틀거린 흔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작품 속에서 감성의 화신 베르테르는 로테를 만난 것을 계기로 이성이 만들어 놓은 갖가지 도그마들과 부딪히게 된다. 그는 이성이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만들어 놓은 신분제도, 관습, 알베르트와 같은 인간과 대립하게 된다. 하지만 완전히 절대화한 이성과의 대립 속에서 그의 순수성을 지키기는 어려웠다. 그가 내적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을 택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논의점 - 1

아니, 좋네! 모든 것이 좋다네! 내가..... 그녀의 남편이라면! 오, 저를 만드신 하느님, 저한테 이런 환희를 안겨 주셨더라면, 제 평생은 오로지기도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중략)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것일까? 빌헬름, 왜 안되겠는가? 로테는 알베르트보다 내 곁에서 더 행복했을 걸세! 오, 알베르트는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네. 어떤 면에서 감수성이 부족한데, 그것은 하나의 결점일세. 열린책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p.123~124



논의점 - 2

나도 몇몇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날따라 모두 별로 말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오로지 B. 양에게만 주의를 기울였다네. 홀의 한쪽 구석에서 남자들에게 옮아가고, 결국엔 S. 부인이 백작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네. 그러다 결국 백작이 나한테 다가오더니 나를 창문이 있는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네. 「자네도 우리의 별난 관습에 대해 잘 알걸세.」 백작은 말하였네. 「여기 모인 사람들이자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눈치일세. 나는 결코……」열린책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P112~113

베르테르 = 시민계급 무도회에서의 따돌림

괴테 = 시민계급 에밀리아 갈로티

귀족사회와 인습으로부터의 억압과 저항

논의점 - 3

"자네는 그런 것을 나약함이라고 하나? 겉모습만 보고 오해하지 말길 바라네. 폭군의 견디기 힘든 압제에 신음하던 백성이 마침내 떨쳐 일어나 **압제의 사슬을 끊는 경우**에도 나약하다고 할 텐가?"

•••

"그러니까 나약한가 강인한가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든 신체적으로든 간에 과연 어떤 한도까지 고통을 견뎌낼수 있는가의 문제야. 그래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해."

자살에 대한 인식 변화 -> 자살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창비, 젊은 베르터의 고뇌, p. 78~89

Vielen Dank!